









한집안식솔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한가족으로 이루어진 집안의 식구를 뜻하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핵가족 체제도 아닌, 서로 남남인 사람들이 한집안식솔을 이루고 한자미아에서 살고 있는 이야기를 전하려고 한다.

정주시 성남동 81인민반의 리수남, 홍복순부부와 한 영애군인.

그들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사회주의적 품속에서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살고있고 있는 우리의 인민의 고결한 정신세계와 함께 남을 위해 지기를 바치는 것이 더없는 미덕으로, 평범한 생활로 되고있는 우리 사회의 참모습에 대하여 다시금 뜨겁게 절감하게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은 나라에 서로 돕고 이끄는 가장하고 아름다운 민중이 가장치게 하여 우리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일심단결의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금으로부터 20년전 8월 어느날 저녁이었다.

그날은 리수남동무가 시인민병원의 경리직원으로 배치받은 때

# 우 리 는 한 가 정

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였다. 석양이 비껴드는 사무실의 창가에서 오후에도 탁을 내다보고있는 그의 눈가에는 파사지 함께 일하는 한 녀성의 모습이 떠날줄 몰랐다. 언제 봐도 쾌활하고 웃음많은 녀성이었는데 왜인지 요즈음은 늘 수심에 잠겨있었다.

그날 리수남동무는 퇴근길에 그 녀성의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갑자기 찾아온 자기를 보고 의아해하는 녀성을 앞세우고 집안에 들어서는 그의 눈앞에 뜻밖의 풍경이 펼쳐져있었다. 세면장에 두드러져있는 빨개진, 침상에 누워있는 녀성의 남편...

그제서야 리수남동무는 그 녀성의 남편이 영애군인이라는 것과 얼마전부터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리수남동무는 자기가 어떻게 그 집에서 나왔는지 미처 알수 없었다. 일단 일이라서 종업원들의 가정생활에 대해 알고도 하지 않은 자신이 부끄러웠다. 두어기 함께 일하는 종업원들 속에 당에서 그토록 아끼는 영애군인의 인내가 있다는 것도 모

르고있을 자기를 두고 과연 일군이냐고 말할수 있는가 하는 광심의 불음이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그와 영애군인가정과의 인연은 이렇게 맺어졌다.

이튿날부터 그의 퇴근길은 의예회 영애군인의 집으로 이어졌다. 말은 혁명파업수행으로 드마번 추에서도 영애군인을 위해 정성을 바치려는 그를 향해 홍복순동무가 도와나섰다. 때로는 남편을 대신하여 영애군인의 건강에 좋은 보약들을 마련하기 위해 수십리 먼길도 다녀오곤 하였다.

이 나날 그들 두 가정은 서로 떨어질때야 떨어질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뜨거워지는 그 정은 영애군인의 인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지난해 5월 어느날 밤 리수남동무는 영애군인에 대한 생각이 또 오후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안해볼 잃고 홀로 살고 있는 영애군인 외로와한세라, 사소한 불편이라도 느껴세라 더욱 관심을 돌려며 돌봐주

게 이 가정에서 영애군인의 철육이 되어야 하는가, 자기도 영애군인을 데려다 함께 살겠다는 것이었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리수남, 홍복순동무들의 눈은 축축히 젖어있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이냐, 얼마나 좋은 사회주의 우리 계도인가.

그로부터 며칠후 영애군인은 리수남동무의 집으로 보급자리를 옮겨오게 되었다.

수신생활 자기를 위해 온갖 지식을 다 바친 리수남, 홍복순동무들에게 무담을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것 같이 처음에는 완강히 사양했지만 전철육같은 그들부부의 정성을 더는 외면할수 없었다.

그들의 손목에 이끌리어 이당하게 꾸러진 방에 들어선 영애군인의 눈가에 《장군님식솔》이라는 글이 띄어진 족자어 떠났다.

한 영애군인을 위해 사심없는 정성을 다 바쳐가고있는 정주방의 평범한 두손.

당의 뜻을 순진한 맘으로 의리로 받들어가는 이런 참된 가정들이 모여 우리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본사기자 신 현

## 은산군전생로병영예군인생활보장사업소에서

### 류다름 명칭을 가진 사업소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전생로병영예군인들을 내세워주고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어야 합니다.》

은산군에는 류다름 명칭을 가진 한 사업소가 있다.

은산군전생로병영예군인생활보장사업소이다. 명칭이 그대로 보여주다 싶이 전생로병영예군인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해주는것이 이 사업소의 임무이다.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전생로병영예군인들을 위해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 남모르는 헌신의 맘을 바쳐가고있다.

자네로 온실도 일때 세외 일을 맡고있고있으며 살림과 상고를 지어주기도 하고 겨울이면 열간과 감장남에도 보양해 주고있다.

본사기자 신 현

지난 10월 어느날 소장 리병철동무는 한 종업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읍에 사는 한 전생로병영예군인을 만나기 위해 일떠러 찾아왔다가 행인지 그냥 돌아갔다 것이었다.

《왜 만나지 않고 그냥 갔을까?》 리병철동무는 당새포위전장과 함께 전생로병영예군인들을 위해 찾아갔다. 알고보니 전생로병영예군인들 집에 찾아갈 줄도 몰라 사업소를 찾아가다가 여가 건물보수를 해주는 곳은 아니지 하는 생각에 되돌아섰다는 것이었다.

《왜서인지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곳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냐.》

전생로병영예군인 미안한 어조로 하는 말이였다.

리병철동무는 집안을 오레도 훑 살피보았다. 구석구석 손이 가야 할 곳이 많았다. 이윽고 그는 어디론가 급히 달려갔다. 얼마후 집주인에 필요한 자재들을 가져오는 차가 마당에 들어왔다. 팔소매를 걷어올리고 작업준비를 하는 그에게 전생로병영예군인사업소에서 구두까지 놓는다고 말했다.

본사기자 신 현

## 첨단의 봉우리를 향하여



전지한 눈빛, 열정적인 탐구자세...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할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힘차게 벌여나가고있는 국가과학원 생물공학학원의 미려한 과학자들.

이마도 이들의 가슴속에는 혁명생애의 미치박에 애생공학학원을 찾아오시어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경제강국을 일떠세우는데서 본인이 맡고있는 임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소중히 간직되어있을것이다.

세계와 경쟁하라, 세계에 도전하라, 세계를 앞서 나가라!

이것을 드림없는 신념으로, 한행의 목표로 삼고 국가과학원 생물공학학원의 연구자들은 오늘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과학학문의 길을 위업없이, 끝까지 걸어가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한 광명

## 어머니가 드리는 고마움의 인사

서흥군을 60인민반 품평화녀성의 이야기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우리 인민의 진정한 어머니이며 참된 삶과 행복의 요람입니다.》

얼마전 서흥군 읍지구를 지나던 우리는 길가에서 여러 젊은 이들이 한 녀인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어머니, 존혁동무원께서 소식을 올리니까? 또 어떤 과학기술성과를 이룩하였습니까?》

《홍복순 아들을 두어서인지 어머니는 나날이 젊어지는것 같습디다.》

## 우 리 실 농 군

이런 말을 들으며 함박웃음을 머금은 녀인은 서흥군 읍 60인민반에 살고있는 권명화녀성이였고 젊은이들은 그의 아들의 동생들였다.

권명화녀성의 아들은 과학자이다. 그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한걸음 나아가고 있어 최고의 명도자동지들 볼가까지 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사실, 존혁동무원께서 소식을 올리니까? 또 어떤 과학기술성과를 이룩하였습니까?》

《홍복순 아들을 두어서인지 어머니는 나날이 젊어지는것 같습디다.》

조국의 편지에 성실한 맘을 묻어가는 농업근로자들속에는 **충군군 보합협동농장 제2작업반 농장원 리정순동무**도 있다.

꿈도 많고 포부도 컸던 꽃나이 처녀처럼 사회주의협동농장생활의 첫 자욱을 찍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리정순동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라의 발

이런 말을 들으며 함박웃음을 머금은 녀인은 서흥군 읍 60인민반에 살고있는 권명화녀성이였고 젊은이들은 그의 아들의 동생들였다.

권명화녀성의 아들은 과학자이다. 그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한걸음 나아가고 있어 최고의 명도자동지들 볼가까지 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사실, 존혁동무원께서 소식을 올리니까? 또 어떤 과학기술성과를 이룩하였습니까?》

《홍복순 아들을 두어서인지 어머니는 나날이 젊어지는것 같습디다.》

## 5 대를 물려온 토지문서

로 빼앗아 제논의 배를 팽개쳐 버렸다.

지주논의 애비 역시 그런 방법으로 토지를 강탈하였다. 일제의 종신징역시기 지주논은 일제를 등에 업고 애비와 할애비를 찢어버리는 고약한 방법으로 토지문서를 빼앗아 갔다.

소작료 6할에 대한 이야기 그 한 사례이다.

농은 소작료를 6할로 받는다 고 신로하였다. 그런데 그 6할의 소작료란 농민들에게 있어서 해어날수 없는 함정이었다. 농은 정당수확고를 임정하게 불어나 그 수확고의 6할을 소작료로 바치고 버린것이다.

농은 갖은 고약한 방법을 다하여 소작료의 어느 한 리에 있는 10여정보의 약초밭도 다 갖고 수심정보의 기름진 논과 밭, 무성한 산림들을 더 거머

## 비 참 한

달아들은 11살, 둘째는 9살, 셋째는 7살, 아버지, 어머니의 품에서 한창 재롱과 울음을 부려야 할 나이에 땅장끼니를 앓을 불룩마치 없어 어머니를 향해 질문을 던졌었다. 이물 한 모자는 뜨거운 피아발아에서 미지맘을 뚫구 뚫구며 카카스로 끝까지 힘겹게 걸어

## 사랑의 집에 울리는 감사의 노래

2월 16일 학생소년궁전을 찾아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소조, 체육소조, 예술소조를 잘 운영하여 훌륭한 인재를 많이 자라날수 있습니다.》

덕선의 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자리잡은 2월 16일 학생소년궁전은 마치 한옥의 그림을 방불케 했다.

그 행복의 집에서 학생소년들이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니 우리의 말걸음은 걸로 빨라졌다.

학생소년들을 한데 안으시고 환하게 웃으시는 어머니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형상한 영상작품이 모셔져있는 궁전중요실에서 부총장 한동문동무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그는 자금으로부터 30년전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관심속에 궁전이 일떠서었다고 하면서 궁전의 실미 하나, 악기 하나에도 당의 사랑과 온정이 뜨겁게 깃들여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소조, 체육소조, 예술소조를 잘 운영하여 훌륭한 인재를 많이 자라날수 있습니다.》

덕선의 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자리잡은 2월 16일 학생소년궁전은 마치 한옥의 그림을 방불케 했다.

그 행복의 집에서 학생소년들이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니 우리의 말걸음은 걸로 빨라졌다.

학생소년들을 한데 안으시고 환하게 웃으시는 어머니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형상한 영상작품이 모셔져있는 궁전중요실에서 부총장 한동문동무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그는 자금으로부터 30년전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관심속에 궁전이 일떠서었다고 하면서 궁전의 실미 하나, 악기 하나에도 당의 사랑과 온정이 뜨겁게 깃들여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 양 어 공 의 기쁨

보다 모르는것이 더 많은 자기가 풀고기들을 어떻게 키르렀는 가 하는 것이었다.

그때 사업소인근이 해준 말을 그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우리 사업소에는 알개우기실과 사료가공실, 수싱기의 양어못 등이 갖추어져있어 많은 새끼고기들을 생산할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가 든든히 속성되었다.

본사기자 신 현

##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도록

단천제련소에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 계급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시하고 진행중이다.

제련소당위원회에서는 계급교양사업을 실천하게 진행하기 위한 뜻깊은 결의회 제1회로 새 로 꾸러진 계급교양실을 통한 교양사업을 계획하고있다.

모든 직공들에서 계급교양실 창원이 끝난 후 실무모임의 의있게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중

업직업수 없었다. 공사장에서 일하던 다른 사람들이 구원하려고 하자 재능심장농들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질곡 절길 한복판에서 네 모자가 한여관에 가판에서 치어죽을 찜자기 벗어났다.

참으로 나빠졌던 그 세월 우리 인민의 지치는 상가적 개보다도 못한 가련한 신세였다.

본사기자 신 현



입체영상물을 통해보로 복수항쟁을 되새김하는 어린이들

본사기자 신 현

